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11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18)	봉헌 (215)	성체 (165)	파견 (115)
---------	----------	----------	----------	----------

제1독서 | 예레 31,31-34

화답송 | 시편 51(50),3-4,12-13,14-15(© 12ㄱ)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제2독서 | 히브 5,7-9

복음환호송 | 요한 12,26 참조



Praise to you, Lord Je- sus Christ, King of end-less glo- ry!

복 음 | 요한 12,20-33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3/4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3/11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3/18	유 요한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3/25	이 그레이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미사책대금
	\$170	\$	\$370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24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3/31	유 요한/ 유 마리아
3/3	오 베드로/ 오 루시아	4/7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3/10	손 아놀드/ 손 쟈마	4/14	홍 마르코/ 홍 아녜스
3/17	이 글라라/ 장 글라라	4/21	김 요아킴/ 고 안나
3/24	이 요한/ 이 마틸다	4/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다음 성체조배는 4 월 5 일 입니다.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서 만나는 시간 되시기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4 월 8 일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문의: 박 바오로)

모임 날짜가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금요일 오후 7 시 (문의: 유요한)

다음 성경은 마르코복음 13,14 장을 필사하여 그것을 통독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장소는 성당 교리실 입니다.

소공동체 모임 (매달 세째주일 미사 후)

오늘 소공동체 모임이미사 후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금요일 오후 7 시)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이 매주 금요일 마다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사순 특강 및 판공성사 오늘 오후 6 시

오늘 저녁 6 시 중 남부 성령 기도회 지도 신부님인 정건석(프란치스코) 신부님을 모시고 사순 특강을 합니다. 특강 전 5 시에 저녁식사를 하겠습니다.

말씀의 이삭

언제나 기쁘려면

권중오 라파엘 -SBS 보도국 스포츠부장-

고등학교 음악 시간 때였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가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을 정말 환상적으로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 다.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저는 마냥 부럽기만 했습니 다. 노래 실력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늘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친구의 모습에서 저는 미국의 팝스타 스티비 원더를 떠올립니 다. 조산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산소 과다 공급으로 실명해 평생 시각장애자로 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 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고음 구사와 동전을 떨어뜨리면 얼마짜리 동전인지 구분할 정도의 상상을 초월한 섬세한 청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저도 언제나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 지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언제나 기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구절의 앞뒤를 바꾸면 해답을 찾을 수도 있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낮추 고 뒤돌아보는 성찰입니다. 인간은 성찰을 해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은 곧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기도를 가끔 합니 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기쁨을 항상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느님 이 제게 주신 은혜는 적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제게 주 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망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저와 반대였습니다. 가난, 흑인, 시각장애라는 삼중고 를 겪었지만 그는 불평하는 대신에 주님이 선사한 비범 한 발성 능력과 청력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더욱 갈고닦았습니다.

우리는 권력, 재산, 명예, 건강, 외모를 모두 갖춘 완벽 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느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 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걸 핑계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불만을 나타내 는 것은 영원한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은 불 공평한 것 같지만 결국 공평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사순 시기에 도 부활은 계속된다고요?

주님 부활 대축일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주님 부활 대축 일 이외의 다른 주일을 작은 부활 축일로 지냅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날의 기쁨을 연장하고, 반복, 재현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주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 득한 날이기에, 고행과 극기도 중지하고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이렇게 고행과 극기, 참회의 보속의 때로 여겨지는 사 순 시기라 해도 그 기간에 있는 주일은 작은 부활 축일이라는 것입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